

불황에 체불 또 체불... 피멍드는 근로자들

광주 작년 4195곳서 376억 못받아 힘겨운 겨울나기

감독관 50명이 업체 8만여곳 관리...지도·감독 부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할 형편이지만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단속해야 할 노동청은 인력부족을 핑계로 현장 파악에만 매달리는 등 소극적 노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11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은 ▲2012년 3904개 사업장(근로자 8897명)

▲2013년 3979개 사업장(9292명) ▲2014년 4195개 사업장(9691명) 등으로 해마다 4% 가량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들의 체불 임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체불임금을 376억26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2년(303억6000만 원)과 2013년(332억6000만 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그나마 경기 침체 등으로 밀린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 상당수 노동자들은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의 경우 지난해 4045명의 노동자가 해당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 처지에 놓인 임금만 202억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376억2600만 원)의 53%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255명의 체불임금(6억7200만 원) 중 구제받은 경우는 117명(45.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체불임금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동청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

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966곳, 지난해 6월까지 273곳 등 전체 사업장의 1% 수준에 불과한 점검만 벌였음에도 적발 업소가 882곳(91.3%)과 233곳(85.4%)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노동계에서 노동청이 광주지역 사업장 8만3000여 곳을 5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관리하는 등 인력 부족을 이유로 체불임금 및 체불 사업장 숫자 파악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현장 감독을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아직은 먼 봄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부근의 한 농원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휴일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겨울 속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 박재억(44·연수원 29기) 강력 부장과 목포지청 이봉창(46·28기) 형사 1부장은 검찰 안팎에서 ‘가슴 따뜻한 검사’로 불린다.

조직폭력배와 조직 불량한 폭력배들을 상대하면서 눈물 한 방울 보일 것 같지 않은 이들 검사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박 부장검사의 경우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으로 지난해 4월 16일부터 수사에 매달려 승무원과 정해진 임직원 등 사고 책임자 38명(구속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 유지까지

가슴 따뜻한 세월호 검사 ‘국민포장’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목포지청 이봉창 1부장

참사 원인규명·책임자 처벌·시신 검시 지휘 도맡아

책임졌다. 특히 첫 재판 때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부자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 잘못 없는, 선내 대기 지지만 따른 착한 학생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란 말을 남

시신 검시 등을 지휘하며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시신안치소 한쪽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족집게를 잡았다. 도시락 1개로 두 끼를 해결하면서 자녀의 시신을 꺼내고 울부짖는 부모를 보며 남몰래 눈물도 흘렸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배려하기 위해 안치 장소를 안산으로 변경하는 ‘변사체 조건부 인도’를 유례없이 시행토록 했고 신원 확인과 인도절차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열전 노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지휘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 최근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 해질 17:40 | 달 뜨기 23:16 | 달 지기 11:23

한 주를 시작하는 화창한 월요일 중국 상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았다.

광주	맑음	-3/5	보성	맑음	-5/5
목포	맑음	-2/4	순천	맑음	-2/6
여수	맑음	-1/5	영광	맑음	-4/3
나주	맑음	-6/5	진도	맑음	-1/5
완도	맑음	-1/5	전주	맑음	-5/4
구례	맑음	-5/5	군산	맑음	-6/3
강진	맑음	-3/5	남원	맑음	-7/4
해남	맑음	-2/5	홍산도	맑음	2/4
장성	맑음	-6/4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
기온	-3/8	-2/8	-1/8	-1/6	-1/4	-2/5	-1/6

‘욕설 논란’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 대해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300만 원, 나머지 범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하위사실을 유포한 자체만으로도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김 전 군수는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징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 새끼 저, 어면 새끼 저 거”라고 욕설을 하고도 욕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흥기월 광주 동구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1일 선거비용 제한 기준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원 흥기월(55)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흥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 의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회계책임자인 박모(33)씨는 처음 회계책임자를 맡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신 옥고 박광태 前시장에

국가 3억1천만원 배상 판결

1970년대 유신시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71)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민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낸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625대만리는만리도 아닙니다.

착한 소갈비수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께 드시고 입주는 억만마지만 없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비수는 불경기용 맞춤브랜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